

2012년 1월 14일 김준석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연행과 학술교류를 통해서 본 18세기 말~19세기 초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전개

※ 김정희의 생애구분

1. 태어나면서부터 연경에 다녀오는 24세까지의 수업기
2. 연경을 다녀온 25세부터 과거에 합격하는 35세까지의 학예연찬기
3. 관직에 나아가는 35세부터 제주도로 귀양가는 55세까지 20년 간의 중년 활동기
4. 55세부터 63세까지 제주도에서 귀양살이하는 9년 간의 유배기
5. 제주도 귀양에서 풀려난 뒤 세상을 떠나는 71세까지의 만년기.

## 1. 청대 고증학의 동향

▲ 청대의 고증학: 송명시대 道學, 理學 心學의 형이상학적이고 우주론적인 두꺼운 베일을 벗기고, 고대 경전을 재해석, 재규명하려 함. 양계초는 고증학을 ‘복고’로 정의. ‘好古家’? 유럽의 르네상스.

-왕명성(王鳴盛, 1722-1798): “經은 道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질없이 의리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원래대로 바로잡고 문자의 유래를 탐구하며 발음을 분간하고, 설명과 주석을 읽고 주석에 정통하다면 ‘의리’는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도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대진(戴震): “經은 道로 향하는 길을 제공한다. 도를 밝히는 것은 말이다. 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소학과 문자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문자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에 통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고대 성현들의 마음과 의지를 꿰뚫어 볼 수 있다.”

▲ 漢學과 宋學의 대립: 漢代의 자료(특히 후한의 경학자인 馬融과 鄭玄의 주석)의 에 대한 연구의 선호, 송명대의 자료를 거부. 한대의 자료가 경전이 편찬된 시기에 더 가깝기 때문. 도교와 불교의 교리가 경학에 스며들기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기 때문. 또 한대 주석가들의 언어학적 방법이 수대 주석가들의 산만한 방법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

-“六經은 공자에 의해 완성되었다. 한대는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서 그리 오래된 시기가 아니었다. 비록 한대의 전승자들에게 약점은 있지만 그들의 이론은 여전히 진실을 담고 있었다. 송대의 학자들은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살았다. 그들의 지성은 보통 사람들을 압도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전의 漢代 학설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만을 통해서 계발될 수 있겠는가”

▲ “경전의 리얼리티”를 되살리고자 함. 小學, 사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 교감학, 율려학(律呂學), 금석학, 교감학(校勘學), 목록학 등을 통해 경전의 본래 의미를 생생하게 재현하고자 함.

-염약거(閻若璩)의 <尙書古文疏證>: 東晉 말기에 나온 <고문상서> 16편 및 같은 시기에 나온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이 모두 僞書임을 밝힘. 상서 <대우모(大禹謨)> 편: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인심은 위태로운 것이고, 도심은 은미하기 마련이다.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여 중심을 빨리 잡아라)’ - 주자는 이를 “반드시 도심이 사람의 주체가 되도록 하면 인심은 언제나 그것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 염약거는 연대학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 구절이 위작자가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힘.

-대진은 천문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짐. 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기술, 역법, 천문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경전 내의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주례(周禮)>의 한 편인 <고공기(考工記)>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적 훈련을 거치지 않은 학자들은 고대에 사용된 공학 기술을 묘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금석학(金石學)에 대한 관심(18세기 후반~19세기 초): 금석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고대의 경전에 없는 ‘사적(事蹟)’이 많이 나타나 사료가 크게 증가하게 됨. “청동이나 석재에 새긴 글만이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생존한 것이다. 금석문을 통해 우리는 고대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작들과 이 저작 안에 묘사된 사실들은 신뢰할 수 있으며, 입증할 수 있다.” 금석학에 대한 관심은 고대의 서체, 전서체(篆書體)와 예서체(隸書體)를 부활시킴. ‘碑學派’: 자신들의 서체가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원본의 서체와 더 가깝고 보다 충실하다는 고증적 주장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움.

▲ 실증적 기준에 입각한 경험적 지식의 강조.

-대진: “무릇 이 몸이 성현이 남긴 경전을 탐구한 까닭은 성인의 緒言이 후세에는 어둠에 묻혀버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구하여 충분한 견해를 얻은 것도 있고 아직 충분한 견해를 얻지 못한 것도 있다. 이른바 충분한 견해란 반드시 옛 것을 검증하여 논리가 일관되지 않음이 없고, 도에 부합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빠짐없이 조사하고, 본말을 두루 고찰한 것이다. 그런데 전해들은 바에 의해 그 옳음을 추정하고, 여러 설 중에서 우수한 것을 취사선택하며, 헛된 말로부터 그 결론을 내리고,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그것이 통하리라 믿는다. 단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을 알 수 있음에도 그 원천이 나오는 곳을 보지 않고, 뿌리를 따라가면 도달함에도 그 갈라진 가지의 움돌이가 다시 갈라지는 것에 손을 쓰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의미를 잃고, 쓸데없이 미혹을 더함으로써 식자들이 이를 판별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능정감(凌廷堪): “옛날 하간현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하였다. 무

릇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앞에 있으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역지로 강변하여 그르다고 하지 못하며, 내가 그르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역지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육서, 구수(九數) 및 전장제도(典章制度)의 학문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헛된 이치가 앞에 있으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별도의 주장을 가지고 그르다고 할 수 있고, 내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별도의 주장을 가지고 옳다고 할 수 있으니, 義理의 학문이 바로 그러하다.”

▲ 애초에 고증학은 명의 멸망으로 초래된 정치적 격변기에 도덕적인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경제의 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 명의멸망을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쇠퇴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 고염무(顧炎武), 황종희(黃宗羲). 계몽파, ‘통경치용(通經致用)’ : 경학에 통달하여 이를 실제문제에 응용함. 정통파: 혜동(惠棟), 대진, 단옥재(段玉裁), 왕염손(王念孫), 왕인지(王引之) - “고증을 위한 고증을 하였고, 경학을 위한 경학을 하였다.”(양계초)

▲ 고증학의 전문직업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건륭 연간에 들어서 초기의 경제적인 관심은 점차 쇠퇴하고 고증학은 전문 직업화됨.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됨. 학술전문가 집단의 출현. 서원, 지방과 국가의 편찬사업 등의 학술 사업에 고용됨.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사업이 가장 대표적. 대진은 사고전서의 찬수관으로 재직 도중 과로로 사망. 서건학, 주균, 완원(阮元) 등은 가장 잘 알려진 관료 후원자. 완원은 1817년~1826년 양광총독으로 재직 시 많은 고증학자들을 고용하여 <황청경해(皇清經解)>를 편찬하게 함. 송명대의 학자 관료군과 대조적.

▲ 19세기 초반 지나치게 전문화, 기술화되고 비이론적, 비실용적으로 된 고증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지를 받기 시작. 청초의 학자들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이 시기의 고증학은 사소하고 불가해한 것에 초점을 맞춤. 원매(袁枚)와 같은 이는 고증학이 ‘功力’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性靈’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 초순(焦循)은 바람직한 경학은 “實”에서 증거를 찾고 “虛”에서 사색하는 것이라고 주장. 능정감은 고대 금석 자료가 고증학이 아니라 감상가의 法帖으로 이용되는데 반대 - 금석문자는 6경의 훈고와 함께 한대 시대 제도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방동수(方東樹, 1772~1851) <漢學商兌>: “한학자들은 모두 모든 말을 뒷받침할 근거를 가졌고, 모든 글자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종이 위에서 고대인들과 훈고, 음성적인 요소, 전주, 문헌의 오류 등을 다룬다. 그들은 다양한 책으로부터 부수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그 증거가 수백 수천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에 적용하거나, 백성과 국가로 확장시킨다면,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변덕스럽게 하여 어떤 것에도 유용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이처럼 한학자들이 ‘실제의 사실에서 진리를 추구할지(實事求是)’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공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漢宋折衷論의 등장. 완원, 초순, 능정감. 완원: “종합해서 말하면, 성인의 도는 선생의 집과도 같다. 本字와 파생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훈고는 입구와 같다. 만약 누군가가 길을 잃는다면, 모든 걸음이 집에서 멀어질 것이다. 어떻게 안채에 오르고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약 학생이 도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고원하여 문헌에 구두점을 다는 기술을 경멸한다면, 이는 마치 선생의 훌륭한 집 지붕 위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새와도 같다. 그가 고원한 것을 얻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는 문과 방안 깊숙한 곳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명칭과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聖道는 논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문과 입구 사이에서 일생을 살면서 결코 안채와 방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 2. 연행과 이후의 교류

- ▲ 김정희의 연행. 1809년 10월 28일 부친 김노경의 자제군관으로 자격으로 연행. 15세 무렵 박제가에서 사숙하면서 연행에 대한 동경을 키움. “개연히 한 생각 일으켜 / 사해에서 널리 지기를 맺고 싶네 / 만약 마음 맞는 사람을 얻게 된다면 /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네 / 하늘 아래 명사가 많다 하니 / 부럽기 그지 없으라” 박제가는 연행에서 이 시를 조강(曹江)에게 소개. 북경에서 약 30~40일 체류. 조강을 만남. 조강의 소개로 서송(徐松), 서송의 소개로 옹방강과 조우. 이별시: “구이(九夷)에서 태어난 나는 참으로 촌스러워 / 중원의 선비들과 사귀는 것이 참 부끄럽다 ...”
- ▲ 옹방강(翁方綱, 覃溪, 1733~1818): 금석학의 대가, 서예가, 청동명문과 석각 분야의 권위자. <양한금석기(兩漢金石記)>가 대표작. 수집가, 장서가. 石墨書樓. 직예 출신으로 강남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고증학계에서 다소 특별한 존재.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 양계초: “옹방강은 오로지 금석 감별에만 힘썼는데 그 고증은 경학과 사학만을 보조한 것은 아니었다.” 朴思浩 <心田稿> (1828년): “옹방강. 호는 담계로 재물을 탐내어 부를 이루었는데, 중국의 사대부는 이것을 경멸하고 있다. 그의 아들과 손자는 영락하여 무명인사가 되고 말았다.” ‘탐재치부(貪財致富)’. 김선신: ‘俗儒.’ 옹방강은 김정희에게 송탁 화도사비 탁본, 소동파의 <천체오운첩>, 당각본 공자묘당비, 육방옹서기 경각석탁본 등을 선사. “단옥재나 손성연(孫星衍)을 만났더라면...”
- ▲ 芸臺 완원 (1764~1849)와 조우: 옹방강과는 다른 급의 학자 겸 관료. 김정희에게 <경적찬고>, <십상경주교감기>, <연경실집> 등을 선사. 김정희는 서악화산묘비탁본, <칠경맹자고문보유> (야마이 가나에 山井鼎), 원나라 주세걸의 <算學啓蒙>을 보내주기로 약속. 그 외에도 주학년(朱鶴年), 이임송, 홍점전, 이정원, 김근원, 김의원 등을 만남.

## 귀국 이후의 교류

- ▲ 중국 인사들과의 서신교환을 통해 활발히 교류. 고증학의 발전에서 서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서신들은 서로 돌려보고 필사되고 토론되고 출판됨.

- ▲ **옹수곤(1886-1815):** 옹방강의 아들. 금석문에 관심. 특히 조선의 금석문에 관심이 많아 김정희와 그 외 조선 학자들에게 비석 탁본을 요청. 후마 스스무: 옹수곤이 고증학계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금석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임. <海東文獻>: 그가 조선금석학에 관련된 어떤 저작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홍현주: “김정희조차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탁본을 보낼 테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 또 부친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장 중의 비장, 원나라 사람의 발문도 기회를 봐서 복사하여 보내줄 것이다.” “부탁한 고비탁본은 오로지나 옹수곤에게만 보내준다면 그 탁본도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이다. 결코 경솔하게 다른 우인에게 보내서 이 옹수곤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도록 주의할 것” “완물상지(玩物喪志)”, “후안무치” - “김정희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우인을 차례차례 소개하고 답례로서 조선에만 있는 문헌을 보냄으로써 한학도입에 쉽없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 ▲ 1822년 부친 김노경이 동지정사, 김명희가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행. 김선신(金善臣)도 동행. 당대의 시인이었던 오승량(1766~1834)과 조우. 오승량은 김노경, 김명희와 교류, 그리고 이들을 통해 김정희와 교류. 조선에서 오승량의 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됨.
  
- ▲ **엽지선(1779~1863):** 김정희와 금석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 옹방강 사후 가장 정성껏 뒤를 돌보아줌. 많은 물품을 김정희에게 보내주고 완당의 청조문화 흡수에 지대한 공헌을 함. 옹방강의 <제경부기(諸經附記)>, <소재필기(蘇齋筆記)>를 김정희에게 보내줌. “저는 늘 부분 2통을 써서 손수 교감을 하여 하나는 귀하께 보내 보관케 하고 하나는 저의 책 상자에 간직합니다. ... <제경부기> 전체는 올해 가을과 겨울 3차례 모두 베껴서 사신 편으로 모두 부쳐드리도록 해서 결코 각하의 간곡한 바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경전해설서가 있을 경우 속속 보내드릴 것이므로 일일이 번거롭게 재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마 스스무는 엽지선에 대한 조선 연행사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소개.
  
- ▲ **이장욱(李璋煜):** 김노경, 김명희와 먼저 사귀. 5년 후 김노경, 김명희의 서찰 속에서 김정희의 대련을 발견하고는 먼저 서찰을 보냄. “널리 동한의 마옹과 정현을 연구하면서 / 정자와 주자를 이반하지 않는다” 1828년 김명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청대의 고증학자들, 대진, 고염무, 염약거, 왕염손, 단옥재, 유태공 등의 저서를 언급하면서 읽기를 권유. “이들 책의 학식은 모두 담계 선생보다 위에 있습니다.” 김선신의 송학만능론에 대한 비판: “저는 감히 송나라 유학자를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산은 감히 한나라 유학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청산의 학문과 재주, 그리고 능력은 남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여러 글은 단연코 지금을 믿고서 후세에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격하게 하는 말에 있어서 방자함을 면치 못합니다.”
  
- ▲ 김정희는 그가 중국으로 보낸 서찰 중 남아 있는 두 서찰 중 하나의 서찰에서: 단옥재와 유태공의 경학이 옹방강 보다 위에 있다는 이장욱의 주장을 반박. “오늘의 급선무는 단지 옛 것을 보존하는 일만이 최상이 되는데 담옹 또한 옛 것을 보존하는 학문이고

단, 유 또 한 옛 것을 보존하는 학문입니다. 담옹은 옛 것을 보존하되 옛 것에만 고착되지 아니하고, 단, 유는 옛 것을 보존하되 옛 것에 고착되었다고 하겠으니 담옹의 옛 것에 고착되지 않는 것도 역시 논의할 만한 것이 있고, 단, 유의 옛 것에 고착되는 것도 역시 논의할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 김선신의 不學非禮에 대한 사과: “청산은 본시 공령의 사람이라 애초에 경술에 공력을 들인 적이 없으므로 그 말이 다 재량이 없습니다. 비록 송나라 이후의 문호라도 말할 만한 것이 못되어 아무리 저와 같은 열등한 자에게도 이러한 등급의 설을 가지고 와서는 설득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中朝의 제공 앞에 높여서 낮추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 이 사람이 자못 슬기로운데 다만 견문이 넓지 못하니 열어 깨우쳐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 ▲ 1829년 <황청경해> 간행. 김정희는 완원의 아들 완상생에게 부탁하여 1,400여 권의 황청경해를 입수. 1831년~1832년 사이에 이상적을 통해 완당에게 전해짐. 다만 옹방강의 저술이 빠져있음을 유감스러워 함. 완상생은 “옹담계 선생은 금석학에 깊어서 근래 제일인자라 하겠으나 경설에 관한 서적에 있어서는 그의 장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설 속에 기록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답변. 이러한 견해는 당시 경학자들 사이에서 꽤 널리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임.
- ▲ 왕희손(王喜孫)과의 교류: 1836년 김정희의 절친한 친구인 권돈인이 연행. 귀국하여 왕희손 앞으로 장문의 서찰을 보냄. 왕희손은 이를 <海外墨緣>이라는 제목을 붙여 책자로 장정. 후지츄카가 이 권돈인 서찰의 초고를 발견하고 이것이 사실은 김정희가 쓴 것임을 밝힘. 김정희가 중국에 보낸 두 서찰 중 나머지 하나. 이 서찰에서 김정희의 고증학에 대한 엄청나게 전문화된 지식을 확인할 수 있음. 천문과 산술, 음운학, 상서금고문, 남북서파론 등. 여러 주요 저술에 대한 논평과 비판, 고증학의 대가들뿐만 아니라 신진학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내리고 있음.
- ▲ 1840년 제주도 귀양. 이상적의 도움으로 중국 서적들을 계속 입수할 수 있었음. 1844년 총 120권, 79책의 <皇朝經世文編> 입수. <歲寒圖>를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줌. 이상적은 이를 연행길에 가져가 청나라 학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시와 글을 받아옴. 최근 박철상의 연구에서는 세한도를 그린 목적 자체가 이를 통한 청 학자들과의 교류에 있었다고 밝힘. “세한시 속에 보이는 조진조(趙振祚)는 과연 어떤 인물이던가? 그 사람됨을 파악하였는가? 시 짓는 장소나 술 마시는 장소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이던가? 이 사람은 申受 유봉록 선생(김정희는 그의 <유예부집(劉禮部集)>을 읽고 그의 학식에 경도되어 있었음)의 생질이 되는 사람이네. 신수 선생은 여러 생질 중에서도 궁침을 아꼈네. 신수 선생이 특별히 아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반드시 외가의 기풍을 지녔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한지가 여러 해 되었지만 서로 연락할 인연은 없었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세한시 속에서 만나게 되었네. 반드시 나를 위해 소식을 전하여 해외에도 궁침 선생의 풍채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 ▲ 만년까지 청조 학계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음. 1852년 67세의 나이로 과천에 정착한 후에도 이상적에게 중국서적의 구입을 부탁. “온갖 생각이 불 꺼진 재와 같은데 어느 거름에 이에 미치리요마는 아직 공부해서 학덕을 쌓으려는 지극한 소원을 아주 끊어버릴 수는 없어서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외다.”

### 3. 김정희와 청조학

- ▲ 김정희의 고증학과의 조우는 고증학이 중국에서 최전성기를 약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짐. “건가(建嘉) 시대를 지나 골동품 가게 같은 고증학”(후마 스스무). “고증을 위한 고증, 경학을 위한 경학”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되던 시점. 특히 ‘한송절충론’이 부상하던 시점. 어떤 의미에서 김정희가 한송절충론을 받아들인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더군다나 옹강방과 완원은 대표적으로 한송절충론을 주장한 학자들. 다른 한편으로 당시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상황이 한송절충론을 선호하게 한 것으로 보임. 김정희는 “청조한학의 도입과 조선의 문화적 유제 사이에서의 이율배반”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대다수의 조선의 학자들은 송명이학의 전통을 고수하는 상황.

- 옹방강: “의리의 학문이 있고 고정(考訂)의 학문이 있으니 고정의 학문은 한학이며 의리의 학문은 송학입니다만 사실 큰 길을 가는데 있어서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천만세동안 공맹의 심전(心傳)을 우러러 받들며 스스로 반드시 정주(程朱)를 삼가 지키는 것을 지남(指南)의 과정으로 여기며 선비들은 머리를 묶고 이를 받아 읽으며 정주 대유(大儒)의 논의를 익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전적들을 두루 섭렵하고 견문이 날로 넓어지면서 마침내 宋儒를 알아잡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정주를 배반하기까지 하니, 이는 사림의 병폐입니다. 그러나 의리가 송유에 와서 더욱 정밀해졌으며, 그래서 송대의 諸儒들은 스스로 의리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 이따금 옛 훈고를 멸시했습니다.” (1816년 1월 25일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 中)

- <實事求是說>: “그욕이 생각하건대, 학문하는 도는 이미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孔)을 귀의처(歸依處)로 삼았으니, 의당 사실에 의거해서 옳은 진리를 찾아야지, 헛된 말을 제기하여 그른 데에 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자들은 훈고를 정밀히 탐구한 한유(漢儒)들을 높이 여기는데, 이는 참으로 옳은 일이다. 다만 성현의 도는 비유하자면 마치 갑제 대택(甲第大宅)과 같으니, 주인은 항상 당실(堂室)에 거처하는데 그 당실은 문경(門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훈고는 바로 문경이 된다. 그러나 일생 동안을 문경 사이에서만 분주하면서 당(堂)에 올라 실(室)에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끝내 하인(下人)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훈고를 정밀히 탐구하는 것은 당실을 들어가는 데에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훈고만 하면 일이 다 끝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히 한 나라 때 사람들이 당실에 대하여 그리 논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문경이 그릇되지 않았고 당실도 본디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晉)·송(宋) 이후로는 학자들이 고원(高遠)한 일만을 힘쓰면서 공자(孔子)를 높이어 '성현의 도'가 이렇게 천근(淺

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 올바른 문경을 싫어하여 이를 버리고 특별히 초묘 고원(超妙高遠)한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허공을 딛고 올라가 용마루[堂脊] 위를 왕래하면서 창문의 빛과 다락의 그림자를 가지고 사의(思議)의 사이에서 이를 요량하여 깊은 문호와 방구석을 연구하지만 끝내 이를 직접 보지 못하고 만다. 그리고 혹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좋아하여 갑제(甲第)에 들어가는 일을 가지고 '갑제가 이렇게 얇고 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어 별도로 문경을 열어서 서로 다투어 들어간다. 그리하여 이쪽에서는 실중(室中)에 기둥이 몇 개라는 것을 말하고, 저쪽에서는 당상(堂上)에 용마루가 몇 개라는 것을 변론하여 설 새 없이 서로 비교 논란하다가 자신의 설(說)이 이미 서린(西隣)의 을제(乙第)로 들어간 것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 갑제의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르기를, "나의 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대체로 성현의 도는 몸소 실천하면서 공론(空論)을 숭상하지 않는 데에 있으니, 진실한 것은 의당 강구하고 헛된 것은 의거하지 말아야지, 만일 그윽하고 어두운 속에서 이를 찾거나 텅 비고 광활한 곳에 이를 방치한다면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여 본의(本意)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방도는 굳이 한(漢)·송(宋)의 한계를 나눌 필요가 없고, 굳이 정현(鄭玄)·왕숙(王肅)과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주희(朱熹)·육구연(陸九淵)과 설선(薛瑄)·왕수인(王守仁)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이 다만 심기(心氣)를 침착하게 갖고 널리 배우고 독실히 실천하면서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찾는다.'는 한마디 말만을 오로지 주장하여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 ▲ 김정희의 고증학 지식 습득은 청조 인사들과의 부지런한 교류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짐. 전해종: “완당의 동시대인이나 후인들의 서술에 완당의 경학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데, 이는 완당의 광범, 신속한 청대학술 수용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왕희손에게 보낸 서찰. <사폐변(私蔽辯)>, <태극즉북극변(太極卽北極辨)>, <理文辨>, <禮堂說> 등을 통해 김정희가 당시 완원, 대진, 능정감의 최신 학설을 접하고 이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장옥에게 보내는 서찰 中: “불녕은 근세 여러 명숙(名宿)의 경설에 있어 마치 주리고 목마른 자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찾듯 하오니 원컨대 선생은 이 잊지 못하는 정성을 곡진히 헤아리시와 불녕의 들었건 듣지 못했건 알건 알지 못하건을 따지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따라 보내 보여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하지만 경전에 대한 자신의 학설이 없으며, 체계적인 경학의 성과를 낳는데 실패. 결국 금석학과 서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함.
- ▲ 후마 스스무는 신재식, 김선신 등 추사 동시대 학자들이 청조의 학술 상황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음을 지적: “신재식이 송학옹호를 위해 거명한 학자들 가운데 이장옥 등이 거명한 것과 같은 근래의 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다. ... 한편 김선신은 숙고 끝에 왕균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을 텐데도 거기에서도 근래의 학자의 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 신재식은 고염무의 저작조차 모르며, 하물며 염약거나 대진의 저작 등은 전혀 몰랐다. ... 그 정도로 당시 양국의 문화에는 깊은 단절이 있었던 것이다.”
- ▲ 고증학은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문. 사실상 조선의 학자가 중국 학자와 동등한 수준



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이는 京華士族 출신 학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음. 김정희는 예외적인 지식욕과 부지런함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으나 그 역시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루는데는 실패. 성해응(成海應): “청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한학에서는 근거가 선명하여 믿을 수 없는 말은 없다. 본래 조선사람이 좇아갈 수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를 가볍게 여길 수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좇아갈 수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급하지도 않은 일(不急之務)이다.”

### 참고문헌

- 김정희, <국역완당전집 1, 2, 3, 4>, 솔 출판사
- 후지스카 지카시(藤塚隣), <추사 김정희 연구: 청조문화 東傳의 연구> 2009.
- 양계초, <중국근대의 지식인(청대학술개론)> 전인영 옮김, 혜안.
- 벤자민 엘만,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양희웅 옮김, 2004.
- 켄트 가이, <사고전서> 양희웅 옮김, 생각의 나무, 2009.
- 후마 스스무(夫馬進), “조선 연행사 신재식의 <필담>에서 보이는 한학, 송학 논의와 그 주변,”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정태섭 옮김.
- 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 전해종, 「청대학술과 완당」, 1963.
- 고재욱, 「金正喜의 實學思想과 清代考證學」, 『태동고전연구』 10, 1993.
- 정혜린, 「김정희의 청대 한송절충론 수용 연구」, 『한국문화』 31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편, 2003.
- 심경호, 「추사 김정희와 고증학」, 『추사연구』 5집, 2007
- 김문식, 「성해응의 경학관과 대중국인식」, 『한국학보』 70집, 1993.
-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21집, 2004.
- 조병한, 「건가 고증학파의 체제통학 이념과 한송 절충사상」, 『명청사연구』 3집, 1994.